일본 면방 각사의 신상품 창조 솜씨들(6)

신나이가이멘의 링 방적 솜씨 - 원료부터 다른 소재 개발

원료부터 타사와는 다른 소재를 내놓겠다. 원사 개발 컨셉에 형상(形狀), 혼상(混狀), 색상(色狀)의 세 가지 기술력뿐만 아니라 원료에서도 차별화하려는 신나이가이멘의 소재 개발은 다종다채(多種多彩)하다.

이제까지 원료면에서는 “텐셀”을 베이스로 하는 차별화 소재가 많은데, 2004년의 히노키 레이온의 “히노키오”를 개시로, 인도 등에 자생하는 식물의 일종 가미도리의 종자모 섬유를 개발한 원사와 같이 화제가 되고 있는 소재가 풍부하다.

2006년을 향하여 원료로부터 특화 소재를 더욱 빨리 개발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앞으로의 주력 상품으로 키우고 싶다고 한 것이 라후마(羅布麻)를 사용한 소재이다. 라후마의 특징은 면의 온화함, 마의 시원함, 실크의 광택과 고급감, 다시 말하여 면, 마, 실크의 좋은 점을 모두 갖춘 소재라고 할 수 있다. 라후마 100% 또는 면이나 텐셀과의 혼방사로서 판매하게 될 것이다.

일본 종이(和紙) 7%를 면과 혼방한 지기사(紙技絲)는 원단을 만들면 천다운 느낌을 주면서도 얼룩감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10수 이하의 태번수가 오히려 특징 있는 얼룩 같은 느낌을 잘 나타내고 있다.

추동용으로는 실크、캐멀(camel)、텐셀의 세 가지 혼방 소재인 “실크 로드얀(Silk road yarn)”을 고객에게 발표하고 있다. 캐멀의 큰 부피와 탄력성, 텐셀의 드레이프성, 실크의 광택감을 융합함으로써 매우 터치가 부드러운 소재가

되었다.

기술면에서는 손으로 뽑은 실 같은 “가라보(和紡)”의 맛을 살린 원사 “가라가라”를 개발하였다. 물론 진짜 “가라보”로 방출하는 것은 아니고, 방적 공정에서 차별화로 개발하였다.

시키보와의 공동 개발에서는 코코넛 섬유와 면의 혼방 소재 “자바 코코넛 코튼(Java coconut cotton)”을 개발하는 등 무엇이든 간에 화제가 많은 신나이 가이멘은 앞으로도 방적 기술만이 아니라 원료 특화라는 면에서도 주목을 받을 것 같다. ♣